



시간과 성장통

신정초 6-6 정서울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이처럼 예부터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고, 정확하게 흘러간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시간을 더 귀중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사실 나는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다. ‘어제는 이 시간 때에 이걸 하겠지.’, ‘내일 이 시간쯤엔 아마 이걸 하고 있겠지?’ 같이 과거나 미래를 상상해 왔다. 이것들은 내 걱정들을 만들게 했고, 뒤돌아보면 불안감에 떨었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그럴 때마다 엄마는 말씀하셨다.

“걱정은 네 몸만 해칠 뿐이지 그로 인해 미래나 과거가 바뀌진 않는다. 걱정을 해서 나쁜 일이 모두 사라진다면 사람들 모두 걱정만 하며 살진 않을까?”라고.

사실 엄마의 말씀이 옳았다. 나는 걱정이 많은 조심스러운 아이였고, 마음속으로 시간 여행을 하며 걱정 또는 조바심을 냈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 실수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똑

같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나에게 주어진 남은 수십 년을 채우고, 쓰고, 그리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이 과정을 내 ‘성장통’이라고 불러주고 싶다.

만약 누군가가 내 과거에 일어났고 미래에 일어날 나쁜 일들을 모아놓고 그것들을 시간 여행을 통하여 바꾸겠냐고 묻는다면, 나는 거절할 것이다. 과거의 내 실수나 약점들은 노력을 만나 현재의 나를 성장 시킬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할 미래는 시간이 흐른 뒤의 나를 과거를 잊지 않게 돕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테니까.

나는 생각해 보면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빨리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해 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지금은 달라지고 싶다. 불이 꺼진 미래라는 방 안에서도 차분히 걱정 없이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앞이 보일 것이고 불이 켜질 것을 잘 배워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다. 당신은 지나온 과거의 상처들을 발판 삼아 현재에 착실하고, 미래에 시작을 겁내지 않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인가? 시간 여행 없이도 자신이 한 실수를 바로잡는 사람으로 끝없이 성장하고 있는가?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로 성장통을 이겨내고 있는가?